

도널드 파울러 박사, 구약 배경, 강의 13 종족, 하비루와 아람인

© 2024 Don Fowler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3부 종족, 하비루, 아람인입니다.

자, 왜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지, 더 구체적으로 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한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린다면 그의 후손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비루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글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결을 하기 전에 하비루에 관해 살펴봐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의 메모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에서 4 아래에 있는 Habiru 또는 Habiru는 같은 의미이며 일찍이 Warad-Sin 및 Rim-Sin과 같이 Akkadian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것들을 보면 알지만, 이 장소들, 이 사람들은 둘 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1800년에 여러분이 메소포타미아 바깥에 있고 아브라함 이후 수백 년이 지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1500년 누지(Nuzi)에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시리아 이름인 아디글라트(Adiglat)의 하비루(Habiru)와 신발티(Sinbalti)라는 여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비루는 아마르나 시대에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은 이것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카드어로 하비루(Habiru)라는 단어가 상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팔레스타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하비루라는 용어가 성경 밖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 사용되는 아카드어라는 용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카드어 단어인 하비루(Habiru)에는 샤라이지(Shara-igizi)라는 수메르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어 단어는 기원전 3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따라서 만약 그것이 3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1000년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지도를 볼 때 내리게 될 첫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하비루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보다 오래 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비루였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가 유일한 하비루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매우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아브라함보다 오래 전에 사용되었고 비옥한 땅 전체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초승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첫 번째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내릴 수 있는 두 번째 잠정적 결론은 이것이다.

수메르어와 아카드어 모두에서 이 단어는 인종 그룹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한, 하비루는 종족 그룹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비루라고 불리는 민족이나 민족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하비루(Habiru)라는 단어는 사회-민족적 용어로 사용됩니다. 즉, 아카드어에서 하비루(Habiru)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종족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들은 모두 사회의 변방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인이었습니다.

내가 예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은 집시라는 용어일 것이다. 집시는 유럽 전역에 살았던 사람들, 특히 유럽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초국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어떤 종족 그룹에도 속하지 않았으며 항상 어느 정도 법을 벗어나 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노트의 c 포인트에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 이 단어가 종족 그룹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 밖에 있고 법의 가장자리에 사는 종족에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d에 오면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비루라는 용어는 출애굽 시대 전후에 고대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히 팔레스타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일부 하비루는 히브리인이었을 수도 있지만 모든 하비루가 히브리인은 아니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비루라고 불렀던 창세기 14장 13절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가 하비루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가 사회의 변두리이자 법 밖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하비루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용어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있던 이스라엘 국경 너머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비루(문화의 변방에 있는 사람을 의미함)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은 있지만 자동적으로 히브리어와 하비루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음성학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의 히브리어와 하비루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우연히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정적이지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것들이 우연히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에서 건너갔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비루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어떤 연관성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같은 단어가 아닌 두 단어일 뿐입니다. 나는 아마르나 기록 보관소에 나오는 하비루(Habiru)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즉, 1370년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왕이 이집트 왕에게 글을 써서 하비루가 온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히브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예루살렘 왕이 하비루가 군대를 보내러 온다고 쓸 때, 그가 말한 것은 하비루가 보내러 온다는 것이며 정확한 용어는 10, 15명의 군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인의 침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여부스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도시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쳤다는 것을 읽습니다.

확실히 10~15명 이상의 병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비루라는 단어가 사용된 아마르나 기록 보관소를 보면 그것이 히브리어와 관련이 없는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만 요점을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비루에 대한 결론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이 건너왔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용어인 하비루라는 단어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 대한 우리의 논의입니다. 그것은 거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내 친구인 Dr. Hildebrandt가 나에게 이것에 대해 또 다른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나는 이것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그게 내 생각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비루인인지 히브리인인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주제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람 사람들의 주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선언할 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람인보다 구약성서 연구에 더 중요한 민족은 없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와 하비루스 사이의 학문적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자손의 기원에 관한 논쟁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창세기의 역사적 진실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거의 300년 동안 아시리아의 서쪽 확장을 억제했습니다. 셋째, 분단군주제 시대에 더욱 중요한 민족적 요소 중 하나이다. 즉, 그들은 분열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요 반대자였습니다.

넷째, 창세기, 에스라, 다니엘, 예레미야서의 일부는, 작은 부분은, 때로는 큰 부분이 아람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위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야곱,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 불렸다고 언급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람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은 함께 알아내려고 한 시간을 보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나요? 두 번째 문단에서 제가 언급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은 비평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비평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아람인이라고 불리는 민족에 대한 최초의 식별 가능한 언급이 티글랏 시대에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원전 1100년경의 필레세르 1세. 누구의 연대 측정 체계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기원전 1100년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기원전 2000년에 이 용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람 민족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기원전 1100년이고 창세기가 실제로 아람이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나중에 라반과 야곱이 함께 키스하고 화장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언약을 맺고 라반은 그의 언약에서 그것을 만든다. 아람어로, 야곱이 히브리어로 언약을 맺었다면, 실제로 야곱 시대에 아람어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의 일부입니다.

기원전 1100년 이전에 아람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제 제안은 창세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겸손한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현명했습니다. 해결책을 향해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해결책을 향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정보를 제외하면 아람 민족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람인들이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사막에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보수적인 견해는 그들이 항상 그들의 고향인 두 강의 아람인 아람-나하라임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컴퓨터 문제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도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에 대해 더 작은 지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에 우리는 그 지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람 민족의 역사적 분포를 지적할 수 있는 작은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건대 내가 이 점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이 용어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파단 아람. 아람 발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 지역의 역사적 명칭입니다. 우리는 시리아 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다.

바로 여기 유프라테스가 보이나요? 여기 발락이 있습니다. 과거 지도에서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위쪽 지역을 아람 들판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헌에서도 아람-나하라임(Aram-Naharaim)이라고 불립니다.

아람나하라임(Aram-Naharaim)은 두 강의 아람(Aram)이라는 뜻이다. 알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전 1100년 이전, 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지역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원전 1100년 이전의 고대 근동 문서에서 이러한 이름에 대해 많이 언급합니다. 당시 이 지역은 아람의 발을 의미하는 파단 아람(Padan Aram) 또는 아람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인 아람-나하라임(Aram-Naharaim)으로 불렸습니다. 두 강 중, 그러므로 두 강은 여기에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에서는 발락 강이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아람 민족의 분포가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이 분열왕정 시대의 아람 왕국의 국경입니다. 이제 해결책을 향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이해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성경 자체가 적어도 이름이나 아람이라는 단어에 대한 다소 일관된 기억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에게는 아람이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이삭과 야곱은 모두 아람인으로 보이는 딸인 브두엘과 라반과 결혼했으며,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자 라반은 자신의 돌 이름을 아람어로, 야곱을 히브리어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5절은 야곱을 방황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가 아람어라는 단어를 지명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그것이 종족 집단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람어를 사용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고고학 기록은 기원전 1100년인데, 이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디글랏 빌레셀 시대까지 완전히 천년이나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에는 아람인과 아람이라는 장소와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인에 대한 다른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데도 실제로 야곱 자신을 방랑하는 아람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대답은 Aram이라는 이름이 아람 민족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내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본 이 지도 어딘가에 아직 그 지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Aram이라는 이름은 Tiglath-Pileser I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Padan Aram은 모든 고대 지도에 있고 Aram Nah aram은 고대 지도에 있으므로 우리는 논쟁의 여지 없이 분명히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Aram이라는 이름이 기원전 1100년의 Tiglath-Pileser 1세보다 완전히 천년 앞서 지도에 나타난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것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아람 사람들과 아람이라는 지명 사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될 질문입니다. 이미 Narm Sin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는 뿔 달린 투구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자신을 신으로 선포하고 신격화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Narm Sin은 2300년 초에 유프라테스 상류 지역에 위치한 아람을 언급합니다. 아람은 2000년 상부 메소포타미아의 드레헴 기록 보관소, 1800년 마리 문서, 1700년 알라라크 서판, 1400년 우가리트에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천년 동안 아람(Aram)이라는 단어가 기원전 1100년 훨씬 이전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티글랏빌레셀 1세보다 훨씬 이전의 팻단 아람(Paddan Aram)과 아람 나하라임(Aram Naharaim)과 같은 상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일부 고대 지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이러한 지명은 아람 민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까? Aram에 대한 지명 언급이 많습니다. Aram이 포함된 지명을 아람 민족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카메라를 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은 창세기에서 읽은 것 외에 아람어가 아브라함 시대에 구어였다는 어떤 증거도 없고 고고학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Aram이 포함된 지명, Aram이 지명으로 나타나는 장소를 언급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아람 민족의 기원은 종종 아클라메(Akhrame) 및 수투(Sutu)족과 연결되며, 이들이 아모리족(Amorites)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언어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 북쪽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인 로슨 영거(Lawson Younger)가 방금 아람어에 관해 그만큼 두꺼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과 천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이유로든 당신이 이것을 더 추구하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은 신학교 도서관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신학교 도서관에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응급실에 있는 young과 마찬가지로 YOUNGER로 철자가 적힌 Lawson Younger라는 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쓴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은 또한 나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창세기가 설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명뿐이라는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집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이 일반적인 영역의 후손으로 묘사하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 특정 지도에서 제 커서를 따라가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가 다음으로 갔던 곳은 하란이었습니다. 그곳 하란에서 그는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는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목하게 될 것은 여기 저 아래에 우르(Ur)라고 불리는 큰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동안 할 일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기 위에 있는 우르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우르에서 왔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두 가지 선택입니다. 히브리인 아브라함.

그 사람은 여기 우르에서 왔나요, 아니면 여기 우르에서 왔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입니다. 대안을 보여줄 지도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책을 구입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Moody Press로부터 로열티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Moody Press에는 Moody Bible Atlas라는 훌륭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책에는 아브라함이 북쪽 우르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멋진 지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추구하고 지도 형식으로 보고 싶다면 Moody Bible Atlas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북쪽 우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11장의 끝 부분에서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11장의 사건의 끝에서 12장의 사건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경첩을 제공합니다. ,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 앞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동영상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땅은 갈대아 우르에 있더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였습니다.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래서 31절에 보면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고,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사라와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갔으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하란까지 가서 그곳에 정착하였다.

괜찮은? 이제 방금 지도에서 알려준 내용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도로 빠르게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에게 말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바로 여기 하란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곳으로 오기 위한 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 하란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곳이 하란의 위치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왔다면 왜 하란으로 갔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분명히 볼 수 있듯이, 당신이 이 우르에서 여기로 갈 때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두 가지 경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경로는 Tadmor를 거쳐 Chatna까지 간 다음 남쪽으로 가는 남쪽 경로가 될 것입니다.

북쪽 경로는 강을 끼안고 여기 알레포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곳은 사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의아해집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봤으니 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우르가 있습니다.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서안에만 머물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쪽 건너갔다 건너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 우르 출신이라면 그가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배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그가 이 지역을 여행하고 하란으로 간다면, 하란은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란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번 큰 강을 건너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펼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지만, 내 관심 수준이 내 주변 세계의 관심 수준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영어 번역본은 모두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헬라어인 칼데아인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Chasdu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비루에 대한 토론을 지울 수 있고 히브리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칼데아인이 아니라 차스두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것을 갈대아 우르로 번역했을까요? 좋아요, 글썄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꽤 좋은 추측일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의 연설에서 스테반은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걸어가는데, 헬라어에서는 당연히 헬레니즘 유대인인 스테반이 70인역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칠십인역은 구약성경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리스어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스티븐은 칠십인역을 인용합니다. 글썄요, 칠십인역에는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티븐의 연설입니다.

두 번째는 Chasdu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자들이 아브라함이 차스두 우르에서 왔다고 말하기로 선택했다면, 차스두에 대한 명확한 식별이 없기 때문에 구약성서 연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음표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 번역이 갈대아인으로 선택되었는지에 대한 나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볼 수 있듯이, 그리스어로 된 갈대아인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첫 번째 요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이 토론을 모두 끝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칠십인역 번역자들은 하스두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지만 큰 도시 우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기원전 3세기에 우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고, 우르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으며, 기원전 3세기에 우르의 지리적 식별을 바로 신약시대까지 알았으므로, 우르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그것을 칼데아 우르로

번역하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우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저는 칠십인역 번역자들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좋아요, 좀 혼란스러우니까 잠시 멈추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세계는 우르에 대해 하나만 알았고 그것은 기원전 5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매우 유명한 도시 우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우르입니다. 기원전 세기, 그 우르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이곳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우르였기 때문에 이곳이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칠십인역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려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칼데아는 기원전 1000년경 남쪽에 처음 등장한 인간형 민족을 가리키는 후기 용어입니다. 그 지역이 칼데아라고 불리게 된 것은 기원전 1000년 중반이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작동하는 것.

나중에 지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당신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시대에는 여기 아래 우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그 우르를 수메르의 우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칼데아라는 단어, 또는 우리가 칼데아인을 얻는 데서 나온 칼데아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시대에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멀리 남쪽에 있는 우르에서 왔다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수메르의 우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에 가서 바벨탑에 대해 읽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11장입니다. 바벨탑은 평야에 세워졌는데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시날이라고 부릅니다.

시날 평야에 이르렀습니다. 글썄, 나는 시날이 일종의 히브리어로 수메르를 타락시킨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는 수메르의 우르라고 불렀을 것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시날

우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관찰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실제로 Chasdu라고 불리는 이 단어 Chaldees를 Chasdu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도 없었던 말씀이다. 기원전 1000년 이후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정착한 아람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갈대아 우르일 가능성은 없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 본문에는 갈대아인이라고 언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챠스두라고 하더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Chasdu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르라면 수메르, 또는 수메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인 시날이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칼데아의 우르(Ur of the Chaldees)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이 하는 일은 바로 지금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의 약간 유머러스한 느낌이 듭니다. 좋아요, Chasde는 어디에 있나요? 좋아요, 그게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당신이 그 일을 통해 나와 함께 있어줘서 기쁘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좋아요, 이제 갑니다. 아브라함은 남쪽에 있는 카스두(Chasdu) 우르에 대해 전혀 짐작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남부 우르를 수메르의 우르로 알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칼두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본문에서 칼두가 출신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단락을 살펴볼 것입니다. 더 나은 제안은 Chaldu가 원시 아람인을 위한 헤브라이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후기 이후로 남쪽의 칼데아인은 북쪽의 오래된 아람인 그룹보다 더 유명해졌고, 칼데아인은 모든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룹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칼두가 실제로 북쪽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는 것은 신비한 용어인 칼두(Chaldu)가 실제로 남쪽에 사는 칼데아인이

아닌 북쪽에 사는 아람인을 가리키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괜찮은? 완전히 혼란스럽지 않다면 그것은 기적에 불과합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후에는 아람어를 사용하는 새로운 민족인 아람어 민족이 이 지역으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남쪽에 정착했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그들은 칼두인 또는 칼데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북쪽에는 아람 사람들이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사람들을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칼두(Chaldu)라는 단어와 연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우르(Ur)에서 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행 길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르(Ur)는 실제로 그 당시 그곳에 거주하던 북방 아람 사람들 때문에 칼두(Chaldu)라고 불렸던 우르(Ur)라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개인 이름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친척이 세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스룩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홀이며, 세 번째 사람의 이름은 데라였습니다. 이들 세 친척의 이름은 모두 북쪽 도시 이름과 동일하다.

스룩(Serug)은 팻단 아람(Paddan Aram)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와 같은 이름입니다. 나홀은 카부르 강이나 그 근처 메소포타미아 상류의 도시와 같은 이름입니다. 데라(Terah)는 북쪽에 있는 도시와 같은 이름이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도를 한 번 더 빠르게 살펴보세요. 여기 팻단 아람 지역에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의 이름과 동일한 세 도시가 있습니다. 이걸 중요하다.

아브라함 시대, 즉 기원전 2100년에 그는 카스두 우르에서 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이름이 도시와 같은 세 친척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친척들이 그 도시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동일한 이름을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북쪽 지역의 도시들과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아브라함이 남쪽이 아닌 북쪽에서 왔다는 어떤 암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떠나 지리학의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지도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두 강의 아람인 유명한 아람나하라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이 지도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여기 아래로 여기 저기로 갈 예정이었다면, 그러면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가 그렇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여기 하란으로 가는 길이요?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여행했다면, 창세기에 이르면 아브라함에게는 하인이 너무 많아서 개인 군대가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여기 북부 지역의 군대를 격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수백 명의 사람과 수백 마리의 동물을 데리고 이 강을 적어도 세 번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적어도 그는 하란에 도달하기 위해 여기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여기에서 발락 강을 건너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하란에 도착했다면 다시 발락 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렸을 뿐 아니라 수행원 수백 명과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강을 네 번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동물의 수.

그가 왜 하란으로 갔는지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글썄, 내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제안도 마찬가지로인데, 그 이유는 하스두 우르가 남쪽에 있는 큰 도시 우르가 아니라 여기 하란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갔던 것은 그곳이 당신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강을 건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란 성의 설형문자 표시가 이렇게 생긴 것은 그곳이 교차점이었기 때문이고,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가던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 바지선이 있었기 때문에 하란에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지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간 이유는 하란이 그의 많은 가족들과 동물들을 배에 실어 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란이 그 길에 옳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남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매우 강력한 주장입니다.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몇 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증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차스두(Chasdu) 지역이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제 증거는 결코 결정적이지 않지만 Chasdu가 남쪽이 아닌 북쪽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훨씬 더 결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올바르게 기억한다면 성경의 몇 가지 중요한 구절, 특히 창세기 24장과 28장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고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24장 10절에 보면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취하고 그 주인의 여러 가지 좋은 것을 손에 가지고 떠났더라 그가 일어나 조심히 주목하라 제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은 New American Standard이며, 메소포타미아로 번역됩니다. 내가 아는 한, 영어 번역은 그런 경향이 있다. 그곳은 메소포타미아가 아니고 아람나하라임이며, 우리는 아람나하라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지도로 돌아가세요. Aram-Naharaim 지도에 보이시나요?

메소포타미아가 바로 그곳이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포타미아가 아닙니다.

그곳은 Aram-Naharaim이고 지도상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으로 갔다가 10절에 보면 나홀 성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아람나하라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곳에 나홀이라는 도시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바로 이곳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갔다고 제가 제안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들의 아내를 구하러 보냈을 때, 그는 자신이 왔던 지역으로 정확히 갔다. 자, 이제 이 작업을 거의 완료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창세기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아내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러나 2절에서는 밧단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벤엘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28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밧단아람입니다. 밧단아람이 북쪽의 강들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아람나하라임으로 갑니다.

아무도 그것이 북쪽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28장에서 그는 밧단아람으로 갑니다. 아무도 그것이 북쪽에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이야기를 읽을 때 본문은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가 태어난 땅이 북쪽에 있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정확히 아람인들이 처음 나타난 곳인 북쪽 우르에서 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작은 소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여기 북쪽에 나타났을 때 이제 에블라 기록 보관소에서 우리에게 도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을일 것입니다. 이

마을은 여기 북쪽 지역에 존재하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북쪽에서 언급된 우르의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와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학자인 우리에게 매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인들이 나타날 때 그들은 북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쪽에 아람의 지명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을 위해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 특정한 영상이 아브라함이 아람 출신이라는 증거가 매우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들을 아람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을 Akhlamites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람 출신이고, 아브라함은 북부 우르 출신이며, 족장들의 고향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며,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그들을 아람 사람들과 연관시킨 이유입니다.

비록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지 않았지만 나는 그것이 그들의 민족적 기원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아람어와 비슷합니다. 창세기에는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람의 추출물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양의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족장들의 고향은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와 마찬가지로 북부 메소포타미아에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도 그들의 본토는 아람나하라임이라고 하고 있고, 아람나하라임이 북쪽의 아람임을 의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럼 이것으로 저는 이 토론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강연이나 다가오는 토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운동인 바다민족운동일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우리는 이번 강의를 마치고 바다민족운동에 관한 다음 강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에 대해 가르치는 Dr. Don Fowler입니다. 13부 종족, 하비루, 아람인입니다.